

#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확대

### 익산시, 원광대 학생회관 · 문화체육센터 등 총 6대 운영... 자원순환 앞장

익산시가 인공지능 기반의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를 확대 설치해 자원순환 활성화에 나섰다.

시는 원광대학교 학생회관과 익산문화체육센터, 유전생태습지공원 등 3곳에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를 추가로 설치했다고 밝혔다.

익산시는 지난 2022년 12월 배산체육공원, 중앙체육공원, 익산시육아지원종합센터에 무인회수기 3대를 설치해 운영해 왔다.

지난해 무인회수기를 통해 투명페트병 15톤을 수거하고 7,400여 명의 시민

에게 700만 원 상당의 자원 순환 포인트를 지급했다.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는 고품질 재활용 자원인 투명페트병을 투입해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적립하는 기계다.



인공지능 센서를 통해 깨끗한 투명페트병을 자동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내용물을 비우고 라벨을 제거한 후 회수기에 투입하면 개당 10포인트(10원)가 적립된다.

시 관계자는 "무인회수기 추가 설치로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재활용 분리배출을 실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분리배출 활성화와 생활 속 작은 실천이 자원순환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인식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는 지난 3일 제6기 외국어 통역봉사자 위촉식을 개최, 군산시 거주 시민 총 38명이 선발됐으며,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스페인어, 독일어 등 다양한 외국어 능력자들로 구성돼 있다.

## ‘외국어 통역봉사자 위촉식’

### 군산시, 국제교류 · 국제행사 비즈니스 통역 지원 봉사단 운영

군산시는 지난 3일 제6기 외국어 통역봉사자 위촉식을 개최했다.

제6기 군산시 외국어 통역봉사자에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양한 외국어 재능을 보유한 시민들이 대거 지원했다. 4월 접수 후 서류 심사와 인터뷰를 통해 군산시 거주 시민 총 38명이 선발됐으며,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스페인어, 독일어 등 다양한 외국어 능력자들로 구성돼 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정희상 군산시 국제관계협력대사가 "국제교류와 통역의 자제 라는 주제로 시를 대표하는 통역봉사자로서의 자제에 대한 강연도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위촉식이 끝난 후 본격적인 통역서비스를 시작하는 외국어 통역봉사자는 향후 2년간 시 주관 국제행사 및 관내 기업의 해외 비즈니스 교류를 지원한다.

그동안 군산시는 관내 국제행사 및 국제교류, 기업체 비즈니스 통역 지원을 위하여 2013년부터 11년간 외국어

구사 능력을 갖춘 군산시민으로 구성된 외국어 통역봉사자서비스를 운영해 왔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총 211회에 걸쳐 389명의 통역봉사자들이 군산시(한글)국제제약대회, 군산수제맥주페스티벌 등의 군산시 주최 국제 행사부터 자매 우호도시 국제교류 행사 등 각종 현장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코로나 팬데믹 극복 후 활발해진 시의 각종 국제 행사를 외국어 통역봉사자들의 빛나는 활약 덕분에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봉사자 여러분들이 시민의교관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현재 군산시는 미국, 중국, 베트남 등 5개국 18개 도시와 국제 교류를 이어가고 있으며,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국제교육도시연합(AIEC) 등 5개 국제기구에 가입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군산=이재춘 기자

## 익산글로벌문화관 세계의상 경연대회 수상자, 악기 기증

익산글로벌문화관은 캄보디아 전통악기 '프러써트'와 '클로이'를 기증받았다고 밝혔다.

기증자는 양시넷 씨로 지난달 27일 진행된 제2회 글로벌 세계의상 콘테스트에서 캄보디아 아베리아(베트남)팀으로 출전해 금상을 받았다.

양시넷 씨는 모국의 문화를 알리고 자 대회 종료 후 준비해 온 '프러써트'와 '클로이'를 전달했다.

'프러써트'는 캄보디아식 해금으로 결혼식, 축제 등에서 주로 연주된다. 2~3줄의 현이 있는 작은 악기로 몸체는 코코넛 열매 껍데기, 접촉면은 송아지나 뱀 가죽으로 만들어졌다. '클로이'는 대나무로 만든 전통악기로 캄보디아식 피리라 할 수 있다.



양시넷 씨는 "모국인 캄보디아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전통악기 기증을 결정했다"며 "캄보디아의 아름다움이 더욱 많이 알려지고 사랑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기증품에서 모국에 대한 자부심과 애정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 군산시 문화관광해설사 38명 선진지 견학 실시

### 근대역사문화도시 경북 포항시 일원 주요 관광지 방문

군산시가 더 나은 관광문화 발전을 위해 문화관광해설사 38명을 대상으로 경북 포항시 일원 선진지 견학을 실시했다.

지난 29일~30일 진행된 견학은 타 지역의 문화관광 해설을 직접 체험하며 해설사의 역량을 강화하여 군산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한층 더 높은 문화관광 해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산시 문화관광해설사들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경주 양동마을을 시작으로 포항시를 방문하여 상생의 손으로 유명한 호미곶 해맞이 광장과 호미곶도 해안둘레길, 구룡포 과메기 문화관을 돌아보며 관광 해설을 체험했다.

특히, 연간 100만명의 관광객이 방문

하는 스페이스 워크를 방문, 관리부서로부터 조성현황과 운영관리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직접 스페이스 워크를 걸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포항시는 우리와 비슷한 일제강점기 역사를 지닌 곳으로 이번 문화관광해설사 선진지 견학은 군산시 시간여행 마을과 포항의 일민인거리를 탐방하면서 역사자원의 보존현황과 관광객 위으로서의 활용방안 등을 비교하는 시간을 가지며 문화관광 해설방법과 요령 등을 점검해보는 기회가 되었다.

서재순 문화관광해설사 회장은 "이번 견학을 통해 다양한 문화와 역사를 경험하며 해설 능력을 키울 수 있었으며 군산이 가진 풍부한 역사의 중요성과 가치를 다시 인식하는 소중한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방문객들에게 군산

의 매력을 알리는 전문성있는 해설로 군산 이미지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군산시 문화관광해설사는 총 38명으로 시간여행마을, 근대역사박물관 등 15개 주요 관광지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설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설서비스 제공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누구나 무료로 신청할 수 있으며, 단체 해설을 희망하는 경우 사전에 관광진흥과 관광마케팅계(063-454-3338)로 문의하면 된다.

문화관광해설사는 관광안내소 뿐만 아니라 소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한 도보 해설 프로그램인 동행투어와 버스를 활용하여 주요 관광지를 관람하는 주말 운영 시티투어에서도 활약하고 있다.

군산=이재춘 기자

## 군산시, 금강피씨 '나눔명문기업 전북16호' 가입식 · 현판 전달

지난 3일 군산시청에서는 (주)금강피씨(대표 서상준)에 사랑의 열매 대표 고액 기업 기부 프로그램인 '나눔명문기업' 가입식과 현판 전달을 진행했다.

나눔명문기업은 대한민국 나눔문화를 이끌고 기업사회공헌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대표 기업으로 누적 1억원 이상 기부한 기업이 가입할 수 있으며 (주)금강피씨는 사랑의열매 나눔명문기업 전북16호로 가입하였다.

이날 '나눔명문기업'에 가입한 (주)금강피씨(대표 서상준)는 군산시 서수면에 소재한 기업으로 양계 등 콘크리



트 구조물을 전문적으로 개발 생산하고 있다. 특히 ESG 경영실천에 따른 사회공헌 활동으로 2019년부터 매해 성금 · 성품을 기탁하며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가입식에 참석한 서상준 대표는 "우리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 가치를 창출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나눔명문기업을 가입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꾸준히 나눔 활동에 동참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강임준 시장은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이웃들을 위해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항상 베풀어 주시는 (주)금강피씨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시에서도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감사를 전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